

교체의 조건과 규칙성에 관련된 몇 문제에 대하여

이흥식*

〈차 례〉

1. 머리말
2. 교체의 대상과 조건
3. 교체의 규칙성
4. 맺음말

[국문초록]

둘 이상의 이형태가 하나의 형태소에 속할 때 이 이형태들은 특정한 조건에 따라 교체한다고 기술한다. 그런데 형태소에 따라서는 이형태들 사이의 교체를 기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그러므로 기저형이 표면형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교체라고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체의 조건은 이형태가 출현하는 환경을 의미하는데 표면형의 전후에 나타나는 언어 단위를 교체의 조건으로 기술할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음운론적 도출 과정에서 해당 표면형의 도출의 환경을 해당 이형태의 교체 조건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환경인데 두 가지 이상의 교체 현상을 보일 때 어느 쪽을 규칙적 교체로 볼 것인가 문제가 된다. 본고에서는 교체의 범위가 더 넓은 쪽을 규칙적 교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용언 어간의 교체에서는 동일한 환경의 체언의 교체와 같은 방식의 교체를 보이는 쪽을 규칙적 교체로 보자고 제안하였다. 활용 패러다임의 입장에서 교체를 기술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규칙적 교체로 보았던 것을 불규칙적 교체로 볼 수 있으나 활용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다. 한국어 용언의 활용형은 매우 많은데 제한된 활용형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만으로 교체의 규칙성을 온전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주제어] 교체, 형태, 형태소, 이형태, 교체형, 어간, 어미, 활용, 기저형, 표면형

* 숙명여대 한국어문학부/한국어문화연구소 교수

1. 머리말

본고는 교체의 대상, 조건, 규칙성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체는 주로 형태소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는데 하나의 형태소에 속하는 이형태들이 환경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현상을 지시해 왔다.¹⁾ 그런데 이형태는 표면층위에서 나타나는 표면형을 가리키게 되므로 이형태들 사이의 관계만을 기술하게 되면 교체를 기술하기 어려운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이진호 2015 : 172). 본고는 교체의 대상과 조건에 관한 문제를 몇몇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특히 음운론적 조건에 따른 교체와 비음운론적 조건에 따른 교체의 구별에 대해서 논의하고 나아가 교체의 규칙성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교체에 대한 논의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교체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교체의 조건과 규칙성에 관한 논의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교체의 조건은 음운론적 조건과 비음운론적 조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문제는 비음운론적 조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데 있다. 비음운론적 조건은 음운론적 조건이 아닌 모든 조건을 다 아우르기 때문에 이를 교체의 조건의 한 종류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비음운론적 조건에 통사론적 조건, 문체론적 조건, 화용론적 조건까지 포함하게 되면 교체의 조건이 엄청나게 확대될 수 있다.²⁾ 배주채(1996, 2009, 2017), 민현식(1999), 이혁화(2002), 김유범(2008, 2017), 김건희(2014)에서는 기존의 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교체, 형태론적 조건에 의한 교체³⁾ 외에 다양한 문법 층위를 교체의 조건으로 인정해

1) 배주채(2017 : 302)에서는 교체를 “한 언어변종 안에서, 한 형태소·어휘소·문법소의 형식이 둘 이상인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본고도 이러한 정의를 받아들여서 논의하기로 한다. 많은 경우에 교체의 논의는 용언의 활용형을 대상으로 하는데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분석해서 얻는 결과가 형태소가 아닌 경우가 많다. 특히 용언 어간이 합성어나 파생어인 경우가 있으므로 교체의 논의를 형태소로 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명옥(2008)의 입장에 따르면 복합어인 용언 어간은 공식적으로 하나의 형태소이므로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교체의 대상이 되는 언어 단위가 무엇인지를 논의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2) 송철의(2000 : 292)에서는 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 형태·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 형태·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비음운론적 교체, 형태론적 조건에 의한 비음운론적 교체를 설정한 바 있다.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박재연(2010), 이홍식(2012), 이홍식·이은경(2017가, 나)에서는 통사적 조건이나 의미적 조건, 화용론적 조건 등은 해당 문법단위의 기능이나 의미의 일부일 뿐이며 교체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고영근(2005)에서는 교체의 조건에는 음운론적 조건과 형태어휘론적 조건밖에 없으며 통사론적 조건은 없다고 하였다. 김경아(1999, 2000, 2003)에서는 음운론적 조건과 형태론적 조건만 설정하였으며 발화음운론적 현상은 교체의 논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홍식·이은경(2017 나)에서는 이렇게 교체의 조건을 확대하면 이른바 유의 관계에 있는 형태소들이 하나의 형태소의 이형태로 묶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음운론적 조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라진다. 이진호(2014)에서는 평장애음 어미의 두음이 용언 어간의 비음 뒤에서 경음으로 교체하는 현상에서 교체의 환경에 음운론적인 단위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용언 어간이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비음운론적 조건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홍식·이은경(2017: 82)에서는 이를 음운론적인 조건으로 보았다. 어미의 결합 조건에 용언 어간이 포함된 것이지 교체의 조건에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체의 조건에 관한 다른 논의는 형태 분석의 층위와도 관련이 되는데 어느 층위에서 형태를 분석하고 그때 그 형태의 환경을 형태소의 교체 조건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진호(2015)에서 이런 문제를 다룬 적이 있다. 활용형 ‘널꼬’에 대해서 표면 층위에서 교체의 조건을 기술할 경우에는 ‘-꼬’의 교체 조건에 ‘ㄹ’ 뒤라는 환경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ㄹ’ 발음 용언 어간 뒤에서 ‘-고’는 ‘-꼬’가 되지 않는다. ‘-고’가 ‘-꼬’가 되는 것은 ‘넓-’이라는 용언 어간 뒤에서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체의 조건에 대한 논의에서는 도출의 중간 층위에서의 음운론적 환경도 포

3) 이혁화(2002)는 형태적으로 조건된 교체와 형태론적으로 조건된 교체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교체를 제외한 것을 모두 형태적으로 조건된 교체라고 하고 이를 다시 형태론적, 통사론적, 어휘론적으로 조건된 교체로 구분하였다.

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체의 불규칙성을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에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박선우(2004)에서 불규칙 활용에 대해 불규칙의 정도성 문제를 다룬 바 있으며 이진호(2014, 2015)에서는 불규칙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불규칙 교체가 정도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이홍식·이은경(2017가), 이진호(2019)에서는 자동적 교체가 항상 규칙적 교체인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찬영(2018)에서는 활용의 패러다임이라는 차원에서 활용의 규칙성과 불규칙성을 논한 바 있다.

용언의 활용을 어간과 어미의 결합으로 다루는 것이 최근까지 매우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활용이라는 관점에서의 연구도 학교문법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그리하여 어간과 어미의 교체는 용언의 활용이라는 이름으로도 기술됐다. 규칙 활용이나 불규칙 활용이라는 용어와 어간과 어미의 규칙적 교체나 불규칙적 교체는 같이 사용되었다. 본고에서의 논의는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일어나는 교체를 다루게 될 것인데 이는 활용의 관점에서는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에 관한 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활용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어간과 어미의 결합을 기술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정정재 2015, 이찬영 2018). 이러한 시도는 심리 어휘부에 대한 연구와 맞물려서 한국어 활용을 어간과 어미의 결합으로 기술하지 않고 굴절형 패러다임과 같은 차원에서 기술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⁴⁾ 다만 한국어 활용형의 수가 적지 않아서 이를 어떻게 활용틀 속에서 기술할 수 있을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고는 일단 어간과 어미의 결합 과정에서 어간과 어미의 형식의 변화를 교체로 이해하고 이 교체 과정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다룰 것이다.

4) 이와 유사한 연구로는 ‘어기’라는 단위를 설정하는 논의가 있는데 어기는 어미의 종류에 따른 용언 어간의 분류라고 이해된다. 가와사키(2011)에서는 일본의 한국어학에서 사용되는 어기 개념이 한국어 활용 기술에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어기’를 규칙적인 교체 여부는 상관없이 설정한 일종의 복수 기저형으로 이해한다면 어휘부에서 어기를 어떻게 기술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교체의 대상과 조건

1) 교체의 대상

교체는 하나의 형태소에 속하는 이형태들 사이의 관계를 가리킨다. 어떤 이형태는 어떤 환경에서 다른 이형태로 교체한다고 기술한다. 형태소의 기저형이나 기본형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기저형이나 기본형이 표면형이나 이형태로 실현되는 과정을 교체라고 기술하기도 한다. 기저형이나 기본형이 일반적으로 이형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형태들끼리의 교체로 기술하는 것과 기저형이나 기본형의 교체로 기술하는 것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론적 기저형이나 추상적인 기저형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 과정이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다. ‘놓-’이라는 어간은 모음 앞에서는 ‘ㅎ’이 탈락한다. 평장애음 앞에 올 때는 평장애음과 축약되어 유기음으로 실현된다. ‘ㄴ’이 올 때는 ‘ㅎ’은 ‘ㄴ’으로 실현된다. 축약을 제외하고 기술하게 되면 ‘놓-’은 음운론적인 조건에 따라 ‘노-’와 ‘논-’으로 교체한다고 기술할 수 있다.

이형태 사이의 관계로 기술할 경우에는 ‘노-’는 ‘ㄴ’ 앞에서 ‘논-’으로 교체한다고 기술하고 ‘논-’은 모음 앞에서 ‘노-’로 교체한다고 기술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형태들 사이의 관계로 기술하느냐 기저형과 표면형 사이의 관계로 기술하느냐에 따라 기술 내용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교체 과정의 환경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과 교체의 규칙성 기술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논-’이 모음 앞에서 ‘노-’로 나타나는 것은 전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이를 규칙적 교체라고 기술하기 어렵게 된다.

이진호(2015 : 172)에서 지적한 것처럼 표면형을 선조적으로 나누어 교체 현상을 기술하는 것은 어미의 기술에서도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널꼬’를 ‘널-’과 ‘-꼬’로 분석하게 되면 ‘-고’와 ‘-꼬’의 교체를 기술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고’와 ‘-꼬’의 교체 환경에 ‘ㄹ’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길고’와 같은 활용형을 보면 ‘ㄹ’ 뒤에 경음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출 과정에서 ‘넓꼬’가 나타난다고 보고 이때 ‘-꼬’의 환경으로 ‘ㅂ’을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체를 기술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률적으로 표면형을 선조적으로 나누어 교체를 기술할 경우에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길-’이 ‘-ㅂ니다’와 결합할 때는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가.⁵⁾ 기저형을 ‘-ㅁ니다’라고 하면 ‘김니다’의 경우에는 ‘기-’와 ‘-ㅁ니다’로 분석이 가능하다. ‘길-’은 ‘ㅁ’ 앞에서 ‘기-’로 교체한다고 기술할 수 있다. 그런데 교체의 환경이 단순히 ‘ㅁ’ 앞이나 하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도출 과정에 따르면 ‘ㄹ’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탈락하게 된다. 한국어의 음운론에서 ‘ㄹ’이 ‘ㅁ’ 앞에서 탈락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교체의 환경을 선조적인 차원에서 기술하게 된다면 ‘ㅁ’ 또는 ‘ㅂ’의 앞에서 ‘기’로 교체한다고 기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진호(2014)에서는 ‘꽤어서’가 ‘꽤서’가 되는 경우를 동화로 기술했다. ‘꽤어서’가 ‘[꽤 : 서]’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때의 교체는 어떻게 기술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다. 동화에서 끝나는 과정이면 ‘-어서’는 ‘애’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애서’로 교체된다고 기술할 수 있다. 그런데 어간의 모음이 장음이 되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진다. ‘꽤-’는 ‘-어서’의 영이형태 앞에서 장음이 된다고 기술해야 한다.

한국어에서 모음조화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영역은 활용이다.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들은 어간의 음운론적인 조건에 따라 교체한다. 이러한 교체가 음운론적인 동기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매우 규칙적인 교체

5) ‘-ㅂ니다’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첫째는 기저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기저형 설정 조건에 따르면 ‘-ㅁ니다’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ㅂ’은 표면형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없다. 물론 ‘ㅂ’을 하나의 형태소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ㅂ’이라는 형태소의 기저형에 관한 문제가 된다. 두 번째는 음절을 형성하지 못하는 ‘ㅂ’ 또는 ‘ㅁ’의 설정 문제이다. 어미가 초성에 두 개의 자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음 두 개가 연속된 형태소 또는 어미의 설정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읍니다’ 또는 ‘-음니다’의 설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으’는 표면형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일단 여기서는 두 번째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기저형을 ‘-ㅁ니다’로 하기로 한다.

의 양상을 띠는 것은 분명하다.⁶⁾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아’나 ‘오’인 경우에는 후행하는 어미가 ‘아’로 시작하게 된다.⁷⁾ 그 밖의 모음인 경우에는 ‘어’로 시작하게 된다.⁸⁾

(1) 가. 막아요, 속아요, 작아요, 줍아요, 약아요, 와요, 아파요

나. 먹어요, 적어요, 묶어요, 신어요, 보내어요, 슬퍼요, 메어요, 펴요, 주어요, 쉬어요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의 경우에도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아’나 ‘오’이면 후행하는 어미는 ‘아’로 시작하는 어미가 된다. 이중모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야’로 끝나는 어간만 나타난다. ‘요’로 끝나는 용언 어간은 없다. ‘야’의 경우에도 ‘약다, 앓다, 알다’에서만 나타난다. 선행하는 음절의 모음이 어떠한 모음이더라도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아, 야, 오’이면 ‘아’로 시작하는 어미가 선택된다.

그런데 마지막 음절이 모음 ‘아’나 ‘어’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동사 ‘가다’나 ‘서다’에 모음 어미가 결합하면 모음이 필수적으로 탈락하게 된다. ‘가--아’, ‘서--어’는 ‘가’, ‘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음조화에 의해 어미가 선택되는지를 표면형에서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음운론적 도출 과정에서 동일 모음 탈락 규칙에 의해 탈락한다고 기술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교체의 대상을 기술할 때는 문제가 된다. 모음어미는 ‘아/어’로 교체한다고 기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이형태의 설정이 불가피한 경우이다. 모음조화 규칙을 기술할 때는 규칙의 환경에 ‘아’나 ‘어’와 같은 모음의 설정이

6) 최근에는 이러한 교체의 양상이 용언에 따라서는 불분명해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아’가 나타나야 할 환경에서 ‘-어’가 나타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막어, 잡어, 닫어’ 등의 예가 보인다. 본고에서는 표준발음에 따른 ‘-아/어’ 교체를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7) 실제 표면 층위에서는 끝음절이 모음 ‘아’나 ‘어’인 경우에는 ‘아/어’가 실현되지 않는다.

8) ‘오’로 끝나는 어간의 경우에는 ‘오’ 앞 음절의 모음이 ‘아’나 ‘오’인 경우에는 ‘아’로 시작하는 어미가 나타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나타난다.

필요하지만 교체의 환경을 기술할 때는 모음어미는 ‘아’나 ‘어’라는 음절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서는 영이형태로 교체한다고 기술해야 한다.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았/었’의 경우에는 이형태로 ‘-ㅁ’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2) 교체의 조건

교체의 조건에 대한 기술에서 용언 어간말 비음 뒤의 평장애음의 경음화를 비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교체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진호(2014)가 그런 입장이다. 교체의 조건에 비음운론적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교체의 조건에 비음운론적 조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비음이라고 하는 음운론적 조건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해당 교체를 비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교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마치 비음운론적 조건만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용언 어간이라는 문법적 조건과 비음이라는 음운론적 조건 두 개를 모두 감안하면 형태 음운론적 조건이라는 명칭이 어울릴 것이다.

그런데 현상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용언 어간이라는 조건이 교체의 조건인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된다(이홍식·이은경 2017가: 82). 경음화라는 규칙의 환경이라는 점에서는 용언 어간이라는 문법적 조건이 개입함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교체의 조건과 규칙의 입력형의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가’의 교체는 음운 규칙과는 무관하다. 단순히 ‘이/가’의 교체 환경을 살펴보고 그 환경이 음운론적인 조건이라는 점만 기술한다. 체언 또는 체언 상당어가 자음이나 모음으로 끝날 때와 같은 조건을 기술하지 않는다. 교체의 조건은 조사 ‘이/가’의 분포에 대해 기술하지 않기 때문이다. 체언 또는 체언 상당어와 결합하는 것은 주격조사의 문법적인 분포에 대한 기술이지 교체에 대한 기술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용언 어미의 분포는 문법적인 정보이다. 이는 해당 어미의 음성적 실현과는 관련이 없다. 해당 어미가 용언 어간이나 선어말어미와 결합해야

하는 것은 해당 어미의 문법적 기능의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고, -게, -지’ 등이 용언 어간과 결합하는 것은 이들이 그러한 문법적 기능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들의 두음이 경음으로 교체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결합한 용언 어간의 기저형이 비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즉 이들 어미의 두음의 교체는 선행하는 어간의 음운론적 조건에 따른 것이다. 이들이 용언 어간과 결합해야 하는 것은 음운론적 요구가 아니라 문법적 요구 때문이다. 체언과 이들 어미의 결합은 불가능한데 이는 음운론적 이유가 아니라 문법적 이유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평장애음 어미가 비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으로 끝날 때 두음이 경음이 되는 것은 음운론적인 조건에 의한 교체가 된다. 실제 기술에서 평장애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비음 뒤에서는 경음이 된다고 기술해도 된다. 이들 앞에 용언 어간이 오는 건 음운론적인 요구가 아니다. 위와 같이 기술한다고 해서 이러한 기술에 예외가 되는 환경이 실제 교체 현상에서 발견될 수는 없다. 어미는 어간 또는 선어말어미와만 문법적으로 적격하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⁹⁾

교체의 환경이나 조건에서 비음운론적인 환경이나 조건의 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본고에서는 비음운론적인 조건의 범위를 최대한 제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음운론적인 조건의 범위가 넓어지면 유의 관계와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의미론에서는 유의 관계에 있는 두 단어를 하나의 어휘소로 파악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유의 관계를 인정한다면 비음운론적 조건을 의미론적인 차이까지 확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비음운론적 조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본고에서는 형태론적인 조건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형태론적인 조건은 유의 관계와 구별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이 아닌가 한다. 형용사 어간과 동사 어간에 따

9) 익명의 심사위원에 따르면 비음 뒤의 평장애음의 경음화는 체언 뒤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용언 어간 뒤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용언 어간 말 비음 뒤의 평장애음의 경음화를 음운론적인 조건에 의한 교체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경음화 현상은 용언 어간 말이라는 비음운론적인 조건을 포함하지만 평장애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의 교체에 대한 조건을 기술하는 차원에서는 비음이라는 음운론적인 조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교체의 조건은 해당 형태소가 이형태로 교체할 때 어떤 환경에 의한 것이냐 하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한 교체가 일반적인 음운 현상에 의한 것이냐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그것은 교체의 규칙성의 차원이다.

라 음상이 달라지는 어미들을 대상으로 교체의 조건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연결어미 ‘-는데’와 ‘-(으)는데’는 분포가 겹치지 않는다. ‘(으)는데’는 형용사 어간에 직접 결합하거나 형용사 어간과 선어말어미 ‘-(으)시-’와의 결합형에 결합한다. ‘-는데’는 그 외의 환경과 ‘있-’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과 ‘없-’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결합한다. 이러한 분포를 기능에 포함시키게 되면 이 둘은 별개의 어미가 된다. 동사 어간과 형용사 어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기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었-’과 ‘-겠-’ 뒤에 ‘-는데’가 나타나는 것을 기능으로 기술하기는 쉽지 않은 듯하다. 더 나아가 ‘있는데’, ‘없는데’와 같이 형용사 어간임에도 ‘-는데’가 결합하는 경우 이를 기능의 문제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는데’와 ‘-(으)는데’의 의미에는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아래와 같이 ‘-는데’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

(2) -는데

- 1 ((‘있다’, ‘없다’, ‘계시다’의 어간,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 2 『1』 ((‘있다’, ‘없다’, ‘계시다’의 어간,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일을 감탄하는 뜻을 넣어 서술함으로써 그에 대한 청자의 반응을 기다리는 태도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 『2』 ((‘있다’, ‘없다’, ‘계시다’의 어간,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의문사와 함께 쓰여) 일정한 대답을 요구하며 물어보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표준국어대사전』의 ‘-는데’와 ‘-는데’의 기술에서는 세 어미의 분포의 차이를 괄호 속에 넣어서 기술하는데 분포의 기술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 외에는 의미의 기술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의미의 측면에서만 보면 이 둘은 하나의 어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어미들은 제법 많다. 그 가운데에서도 ‘-느냐’와 ‘-(으)냐’는 재미있는 변화 양상을 보인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느냐’와 ‘-으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술을 제시한다.

(3) 가. -으냐 ((‘리’를 제외한 받침 있는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여,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예스러운 느낌을 준다.
방이 넓으냐? / 뉘시가 그리도 좋으냐?

나. -느냐 ((‘있다’, ‘없다’, ‘계시다’의 어간,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여,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예스러운 느낌을 준다.
지금 무엇을 먹느냐? / 안에 누가 있느냐? / 너는 그때 학생이었느냐?

‘-으냐’는 형용사 어간 가운데에서 자음 어간 뒤에 결합한다는 것이다. 모음으로 끝나는 형용사 어간에는 이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어미 ‘-냐’가 결합할 듯하지만 그렇지 않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4) -냐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여,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주로 구어에서 쓰인다.¹⁰⁾
얘가 네 동생이냐? / 어디 가냐? / 그게 뭐냐?

아마도 ‘-냐’는 ‘-으냐’와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어미였을 것이다.¹¹⁾ 그런데

10) 종이사전인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주로 구어에서 쓰인다’는 기술이 제시되지 않았다.

11)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에서는 ‘-냐’를 ‘-느냐’, ‘-으냐’의 이형태로 간주하는 듯하다. 이 세 어미의 의미를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냐’에 대해서는 ‘-느냐’와 달리 현재 시제로만 사용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었-’이나 ‘-겠-’과 ‘-냐’가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확하게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말 큰사전』의 편찬자들이 이들 형태가 하나의 형태소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최근에는 ‘-냐’는 ‘-으냐’와 화용론적인 의미의 차이를 보이게 되면서 ‘-으냐’의 이형태가 아니라 독립된 어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으냐’의 음운론적 조건에 따른 교체형인 ‘-냐’라는 짝이 없어진 것이다.¹²⁾ 예스러운 느낌을 주는 의문의 어미는 모음으로 끝나는 형용사 어간에서는 빈칸을 보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냐’는 거의 모든 환경에서 구어적인 장면에서는 ‘-느냐’를 대체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느냐’와 ‘-으냐’가 기능의 차이가 없이 환경에 따른 교체형이기 때문일 것이다.¹³⁾ 기능의 차이가 없이 상보적 분포를 보이던 하나의 어미의 교체형이 하나의 단일한 교체형으로 줄어들면서 구어적인 장면에서 쓰이는 어미로 변화해 지금은 의고적인 어미와 구어적인 어미가 공존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변화는 결국 ‘-느냐’와 ‘-으냐’, ‘-냐’가 동일한 기능을 하는 하나의 어미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기능에 화용론적인 기능의 변화가 일어나고 교체형의 수도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형용사 어간과 동사 어간에 따른 교체는 비음운론적인 교체의 한 종류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12) ‘-으냐’의 음운론적 교체형인 ‘-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문어적인 장면에서는 형용사 모음 어간 뒤에서는 ‘-냐’가 쓰여야 하는데 이때 그 문장만 구어적인 어미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환경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중화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기능의 중화를 얘기할 수 없다면 최소한 그러한 장면에서는 ‘-으냐’의 교체형으로서 ‘-냐’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동일한 형태가 억양에 따라서 화용론적인 기능의 차이를 보이는 현상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13) 익명의 심사위원은 ‘-느냐’를 ‘-느-’와 ‘-냐’의 결합형으로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은 ‘-느-’가 *바쁘느냐에서처럼 형용사 어간에는 직접 결합하지 못하지만 바쁘겠느냐와 바쁘느냐에서처럼 형용사 어간에 결합한 ‘-었-’과 ‘-겠-’ 뒤에는 결합이 가능한 이유를 기술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선어말 어미 ‘-느-’가 동사 어간, ‘-었-’, ‘-겠-’ 뒤에는 결합하지만 형용사 어간 뒤에는 결합하지 못하는 분포상의 특성을 ‘-느-’의 기능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교체의 규칙성

1) 규칙성의 판정 기준

이진호(2014 : 14)에서는 형태소 교체의 규칙성을 판정할 기준 세 가지를 제시했다.

- (5) 가. 교체에 의한 이형태의 출현을 일반적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가?
 - 나. 동일한 교체를 보이는 형태소들을 같은 부류로 일반화할 수 있는가?
 - 다. 교체가 일어나는 환경 또는 조건을 일반화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진호(2019 : 7)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제시했다. 이 조건은 기존의 논의에서 교체의 규칙성과 관련하여 제시했던 조건들을 이진호(2014 : 6)에서 정리한 것이다.

- (6) 가. 교체 양상의 일반화 여부
 - 나. 교체 방식의 빈도
 - 다. 교체 양상의 동일성 여부
 - 라. 형태론적 조건의 유무
 - 마. 음운 규칙에 의한 설명 가능성
 - 바. 일반적 교체 방식의 준수 여부

어떤 이유에서 기존의 조건들을 규칙성 검토에 다시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두 가지 기준이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빈도와 형태론적 조건이 추가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빈도는 두 가지 교체 방식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어느 것을 규칙적이라고 볼 것인지를 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진호(2019 : 11)에서는 빈도와 형태론적 조건의 유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실

제 교체 현상의 규칙성 여부를 판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불규칙 교체의 판정 기준을 대상, 조건, 결과의 일반화 가능 여부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러한 교체가 음운 규칙에 의해 기술될 수 있는지를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음운 규칙에 의해 기술될 수 있는 경우는 대상, 조건, 결과의 일반화를 함의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규칙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입력형이 일반화되어야 할 것이다. 입력형이 특정한 음운론적 속성에 따라 기술되지 않는 개별 형태소라면 이를 규칙의 입력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규칙 적용의 환경 역시 특정한 형태소가 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결과 역시 규칙에 의해 도출되므로 일반화가 가능하다. 다만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하더라도 규칙에 의해 기술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규칙이 나머지 조건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진호(2019)에서 제시한 교체 현상은 ‘자음군단순화’, ‘역행적 유음화 및 유음의 비음화’, ‘ㅎ 발음 체언의 곡용’ 모두 세 가지인데 이들 모두 네 가지 조건에서 불규칙하다. 그런데 이진호(2014)에서 지적한 대로 ‘되~돼-’의 교체는 교체 대상이 일반화가 가능하고 교체 결과도 일반화가 가능하다. 또한 교체의 환경도 일반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진호(2014)에서는 규칙적 교체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러한 교체가 규칙에 의해 기술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대로라면 ‘하~해-’의 교체 역시 동일할 것이다. ‘하-’는 자음 어미와 매개모음 어미와 결합한다. 매개모음 어미는 매개모음이 탈락된 표면형으로 실현된다. 그리고 ‘해-’는 모음어미와 결합한다. 교체의 대상이 ‘하’라는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되~돼-’와는 다르다. ‘되~돼-’는 ‘외’라는 단모음으로 이루어진 형태소이지만 ‘하-’는 음절이므로 교체의 대상을 특정한 음소를 포함하는 형태소라고 한다면 ‘하~해-’의 교체 대상은 일반화할 수 없다. ‘ㅏ’로 끝나는 모든 형태소가 이러한 교체를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꽤’를 가진 용언 어간의 경우에는 교체 대상을 일반화하는 것이 어렵다. ‘뵤-’은 ‘뵤-, 뵤-’ 등과는 달리 자음군 단순화의 양상이 다르다. ‘뵤-’은 표준발음법에 따르면 자음 앞에서 ‘ㄹ’이 탈락한다. 이에 반해 ‘뵤-,

짧-'은 자음 앞에서 'ㅂ'이 탈락한다. 이때 교체의 대상이 구별될 수 있으면 교체의 결과도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체의 대상은 모두 'ㄷ'이라는 자음군을 말음으로 가진다. 그러므로 교체의 대상을 구별하여 각각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물론 동사 어간과 형용사 어간이라는 속성을 일반화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는 있다. 즉 동사 어간 가운데 'ㄷ'으로 끝나는 어간은 'ㄷ' 탈락이라는 교체를 보이고 형용사 어간 가운데 'ㄷ'으로 끝나는 어간은 'ㅂ' 탈락이라는 교체를 보이는 것으로 기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자음군 'ㄷ'에서 'ㄷ'이 탈락하는 것은 일반화를 가능하게 하는 듯하다.

그러나 'ㄷ'으로 끝나는 체언의 경우를 보면 양상이 다르다. '여덟도'는 '여덨도'와 같이 실현된다. 'ㅂ'이 탈락하는 것이다. 넓은 영역에서의 교체 양상을 살펴본다하면 'ㄷ'에서 'ㅂ'이 탈락하는 현상을 좀 더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면 자동적 교체인데서 규칙적 교체인 것은 'ㄷ'이 'ㄷ'이 되는 경우이다. 'ㄷ'이 'ㅂ'이 되는 것은 자동적 교체인데서 규칙적 교체이다.

'ㄷ' 말음 용언의 교체는 규칙적이라고 할 수 있다. 'ㄷ'을 제외한 자음 앞에서 자음군단순화에 의해 'ㄷ'이 탈락한다. 이러한 탈락은 체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만 'ㄷ' 앞에서 'ㄷ' 체언은 'ㄷ'이 탈락한다. 용언과 체언 어간의 교체가 다르다. 그런데 품사 정보를 포함하여 규칙을 설정하게 되면 용언 어간에서의 'ㄷ' 탈락은 'ㄷ' 말음 용언 어간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ㄷ' 탈락에 의한 교체는 규칙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음조화 현상은 불규칙 용언의 경우에는 양상이 조금 달라진다. ㄷ 불규칙이나 ㅂ 불규칙의 경우에는 모음조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음이 탈락한 경우에도 여전히 어간의 마지막 음절의 모음에 따라 '아/어'의 선택이 결정된다. 그런데 ㅂ 불규칙 용언의 경우에는 양상이 조금 복잡해진다.

ㅂ 불규칙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뉜다. 모음조화를 지키는 유형과 지키지 않는 유형으로 나뉜다. '뚫다'와 '곱다'는 모음조화를 지키는 유형이고 나머지 ㅂ 불규칙 용언들은 모음조화를 지키지 않는다.

(7) 가. 도와요, 고와요

나. 가까워요, 위태로워요

일반적으로 이 둘의 기본형을 ‘돕다, 곱다’와 ‘가깝다, 위태롭다’로 설정한다. 그런데 ‘돕다, 곱다’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어간 끝음절의 모음이 ‘오’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가깝다, 위태롭다’는 어간의 끝음절이 ‘아’와 ‘오’인데 ‘아’ 모음의 어미와 결합하지 않고 ‘어’ 모음의 어미와 결합한다. ‘가깝다, 위태롭다’는 불규칙 용언인데 모음조화에서도 불규칙 용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본형을 설정하는 방식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반대의 상황이 된다. 복수기저형을 설정하게 되면 ‘가깝-, 위태롭-’은 자음어미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어간형이다. 매개모음어미나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는 전혀 다른 어간이 나타나게 된다. 이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모음조화에 대한 기술이 달라질 수 있다.

‘가까워요, 위태로워요’와 ‘가까우면, 위태로우면’에서 어간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가까워요, 위태로워요’에서는 ‘가까_{w-}, 위태로_w’가 분석될 수 있다. ‘가까우면, 위태로우면’에서는 ‘가까우-, 위태로우-’가 분석될 수 있다. 모음어미와 결합하는 어간의 경우에는 하향이중모음을 어간의 마지막음절에 설정해야 한다. 매개모음어미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만약에 하향이중모음의 어간을 설정하면 매개모음과 결합할 때 매개모음과 반모음이 축약되어 ‘우’라는 모음이 되는 음운 규칙을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처리는 다른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안게 된다. 또한 이진호(2007 : 155)에서 제시한 형태소 구조 조건을 여기게 된다. 매개모음에 나타나는 어간을 기저형으로 설정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는 피할 수 있다. ‘가까우-+-어’는 ‘가까워’가 되는 과정은 ‘배우-+-어’가 ‘배워’가 되는 과정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복수기저형을 인정하고 매개모음어미와 모음어미와 결합하는 어간은 복수기저형 가운데 하나라고 가정한다면 ‘가까워요, 위태로워요’는 ‘가까우-+-어요’와 ‘위태로우-+-어요’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어간의 마지막 음절이 ‘우’

이므로 모음어미의 경우,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선택된다.¹⁴⁾ 그런데 문제는 ‘돕다, 굽다’에서 발생한다. 이들의 복수기저형 중 하나를 ‘도우-’와 ‘고우-’로 설정하게 되면 이들 어간의 마지막 음절의 모음은 ‘우’가 되므로 이들은 당연히 ‘어’와 결합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아’와 결합한다.¹⁵⁾

복수기저형을 설정한다고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둘 중 하나는 모음조화라는 현상에서 불규칙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일단 복수기저형 가운데 하나를 ‘우’로 끝나는 어형으로 설정하게 되면 모음조화에서 불규칙한 양상을 보이는 용언은 ‘돕다, 굽다’라고 기술해야 한다.¹⁶⁾

‘돕다’와 ‘굽다’는 ‘가깝다, 위태롭다’와 같은 유형의 복수기저형을 갖게 되지만 모음조화에 대한 불규칙한 양상을 어휘부에 어떤 식으로든 기술해야 할 것이다. 모음조화를 하나의 규칙이라고 한다면 이 규칙의 적용에 대한 예외가 되는 어간이라는 정보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방식이 어떤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른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돕다, 굽다’의 활용형이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 다만 모음어미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들 용언의 모음어미 결합 활용형이 모두 등재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사전의 처리처럼 생각해 본다면 ‘도와, 고와’와 같은 어간과 어미의 결합형 조각을 등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해당 어미와 이들 활용형 조각의 연결에 대한 규칙 설정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이들 용언 어간의 경우에는 ‘아’ 어미가 선택된다는 정보를 어휘부에 설정하게 된다. 이들 정보는 각각의 모음어미의 어휘부에도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아’로 시작하는 어미는 모음조화에 따라 선택되었지만 특별히 ‘돕다, 굽다’라는 용언 어간과 결합한다는 정보도 추가되어야 한다.

규칙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규칙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용

14) 물론 어미의 기저형이 ‘-어요’라고 한다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아’로 대체되지 않는다고 기술하게 될 것이다.

15) 복수기저형 설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기저형 설정의 문제와 그 대안으로 활용형을 어휘부에 등재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수정(2014 : 69-75)에서 정리한 바 있다.

16) 복수기저형 가운데 하나를 반모음 ‘w’ 하향이중모음을 갖는 기저형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아마도 ‘가까워요, 위태로워요’를 불규칙 용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아’와 ‘오’인데 ‘어’와 결합하기 때문이다.

언 어간 말의 '으' 탈락은 용언 어간에서만 적용되는 규칙이다. 모든 음운 규칙이 규칙의 대상도 음운이어야 하고 규칙의 환경도 음운이어야 한다면 '으' 탈락 규칙은 규칙으로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음운 규칙에서 규칙의 적용 대상은 비음운론적 정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¹⁷⁾

2) 활용의 패러다임과 규칙성

이찬영(2018)에 따르면 용언 어간의 '으' 탈락에 의한 교체는 불규칙의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교체를 기술할 때 어간 말음 '으' 탈락에 의한 어간의 교체는 규칙적 교체로 분류한다. 물론 다른 규칙적 교체와는 달리 한글맞춤법에서는 불규칙과 유사하게 소리나는 대로 적는 유형에 포함시킨다. 이는 이 교체가 '으' 탈락이라는 음운 현상에 의해 매개되므로 기저형과 표면형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르' 탈락 용언 어간의 교체 역시도 불규칙의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맞춤법에서는 '르' 탈락의 경우에도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음운의 탈락은 교체형 사이의 차이를 크게 만들어서 규칙적 교체라기보다는 불규칙적 교체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찬영(2018)에 따르면 복잡성 또는 불규칙성이 높은 활용 패러다임에서 낮은 활용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것이 한국어 활용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이라고 했다.¹⁸⁾ 그런데 복잡성이나 불규칙성이 매우 높은 '으' 탈락 규칙에 의한 용언 활용은 아직 그런 변화가 시작된 듯하지 않다. '르' 탈락 용언 활용의

17) 이는 강창석(1985)의 입장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비음운론적 제약이 포함되는 음운 현상은 음운론의 영역이 아니라 형태론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는 입장에서라면 용언 어간 말의 '으' 탈락은 형태론의 영역이 될 것이지만 본고에서는 비음운론적 제약을 갖는 음운 규칙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불규칙 교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18) 용언의 활용을 어간과 어미의 결합으로 기술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굴절형 패러다임과 유사하게 활용형 패러다임을 설정하는 연구들도 있다. 정경재(2015), 이찬영(2018)이 그러한 연구의 흐름에 있으며 송원용(2015)에서는 활용형의 심리적 실재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활용형의 어휘부 등재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에서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어서 활용형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용언의 활용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다만 한국어의 활용 패러다임을 어간과 어미의 결합 전부로 확대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이른바 활용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경우에는 그러한 경향이 조금 보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변화에 비해 우세한 변화라고 하기는 어렵다. 어떤 이유에서 불규칙성이 매우 높은 활용 패러다임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더 낮은 활용 패러다임에서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았다. 아마 활용 패러다임의 복잡성의 측정이 언어 현실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아동들의 활용 패러다임 오류 양상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아파고, 아파지’와 같은 활용형이 많이 나타나거나 ‘아프어’와 같은 활용형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아래는 이찬영(2018 : 71)에서 제시한 활용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이다.

(8) 어휘소 ‘풀다’

활용 패러다임 ① : 풀고, 푸니, 푸러 (르부류, 1049.30)

활용 패러다임 ② : 푸르고, 푸르니, 푸러 (—부류, 412.43)

활용 패러다임 ③ : 푸르고, 푸르니, 풀러 (르부류1, 38.54)

활용 패러다임 ④ : 풀르고, 풀르니, 풀러 (—부류, 412.43)

위에서 더 높은 예측 엔트로피를 가진 활용 패러다임에서 더 낮은 예측 엔트로피를 가진 활용 패러다임으로 변화한다고 했는데 활용 패러다임 ①에서 ②로, ②에서 ③으로의 변화는 더 낮은 예측 엔트로피의 변화인데 ③에서 ④로의 변화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예측 엔트로피의 증감만으로는 활용 패러다임의 변화를 기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어간과 어미의 결합을 교체라는 현상을 통해 기술해 왔다. 이러한 기술이 갖는 문제가 있음에도 활용의 패러다임에 의한 불규칙성을 기술하는 데는 아직 추가로 기술해야 할 현상이 더 많은 듯하다. 어간과 어미의 결합 과정에서 음운 규칙의 설정이 가능한 경우를 규칙적 교체라고 판정하는 것은 교체의 규칙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찬영(2018 : 64)에서는 ‘—부류’의 활용 틀은 [X—고, X—니, Xㅏ/ㅣ]이

므로 다른 어휘소들의 매개모음어미 및 모음어미 활용형 중 상당수가 이 활용형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부류’는 전체 활용 패러다임 체계 내에서 화·청자로 하여금 해당 활용 부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불확정적이고 따라서 높은 엔트로피 값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용언 활용 발화를 관찰하였을 때 ‘-’ 말음 용언의 활용 오류 사례가 상당수 발견된다는 연구 결과(이삼형 외 2009, 백경미 2011)와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이론 내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 실재성의 차원에서도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ㄷ’의 활용형 ‘ㄷ니, 끼’와 같은 활용형이 다른 용언 활용형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해당 활용형을 접했을 때 청자가 어떤 용언의 활용형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실제로 ‘끼다’라는 용언은 없다. 대체로 ‘으’로 끝나는 용언은 ‘르’를 제외하면 그 수가 많지 않으며 이 용언들의 활용형은 다른 용언의 활용형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듯하다.¹⁹⁾ ‘슬프다, 아프다, 기쁘다, 가쁘다, 바쁘다, 시쁘다, 모으다, 헤프다, 잠그다, 예쁘다, 서글프다, 부쁘다, 미쁘다, 쓰다, 크다, ㄷ다, 트다’ 등의 활용형이 다른 용언의 활용형과 겹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활용형이 겹쳐서 청자가 활용형을 분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듯하다. 계량에 의한 불규칙성의 판정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활용형의 중의성 여부라는 변인도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삼형 외(2009 : 137), 백경미(2011 : 267)에서 제시한 유아의 활용형 오류는 활용형이 겹쳐서 오분석을 한 것 같지는 않다. ‘아/어’형 어미가 발화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을 ‘아/어’로 끝나는 용언 어간으로 착각한 것이다. ‘커면, 잠가려구, 켜’ 등과 같은 활용형이 이른 시기에 나타났는데 예가 많지는 않다. 이러한 활용형이 나타나는 것은 유아들이 해당 용언 어간이 ‘아/어’로 끝난다고 잘못 분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어’에 이끌리는 경향은 전반적으로 나타나서 ‘으’ 말음 용언에 국한된 문제는

19)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결과 ‘으’로 끝나는 용언은 모두 574개였다. 이 가운데 ‘르’로 끝나는 용언이 395개였다.

아니라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교체의 대상과 조건을 살펴보고 교체의 규칙성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았다. 형태소의 교체를 기술할 때 교체의 대상은 이형태들이다. 둘 이상의 이형태가 하나의 형태소에 속할 때 이 이형태들은 특정한 조건에 따라 교체한다고 기술한다. 그런데 형태소에 따라서는 이형태들 사이의 교체로 기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그러므로 기저형이 표면형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교체라고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체의 조건은 이형태가 출현하는 환경을 의미하는데 표면형의 전후에 나타나는 언어 단위를 교체의 조건으로 기술할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음운론적 도출 과정에서 해당 표면형의 도출의 환경을 해당 이형태의 교체 조건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자동적 교체는 규칙적 교체를 함의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특정한 교체는 자동적 교체이기도 하지만 규칙적 교체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동일한 환경인데 두 가지 이상의 교체 현상을 보일 때 어느 쪽을 규칙적 교체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본고에서는 교체의 범위가 더 넓은 쪽을 규칙적 교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용언 어간의 교체에서는 동일한 환경의 체언의 교체와 같은 방식의 교체를 보이는 쪽을 규칙적 교체로 보자고 제안하였다. 활용 패러다임의 입장에서 교체를 기술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규칙적 교체로 보았던 것을 불규칙적 교체로 볼 수 있으나 활용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다. 한국어 용언의 활용형은 매우 많은데 제한된 활용형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만으로 교체의 규칙성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 참고문헌

- 가와사키 케이고, 「'어기설'과 중세한국어 동사활용」, 『형태론』 13.2, 2011, 245~265쪽.
- 강창석, 「활용과 곡용에서의 형태론과 음운론」, 『울산어문논집』 2,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85, 48~67쪽.
- 고영근, 「형태소의 교체와 형태론의 범위 - 형태음운론적 교체를 중심으로」, 『국어학』 46, 국어학회, 2005, 19~52쪽.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 _____, 『표준국어대사전』, 2021(<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김건희, 「이형태 설정의 문제」, 『어문학』 123, 2014, 1~37쪽.
- 김경아, 「형태음운론적 교체와 형태음운부」, 『형태론』 1-2, 1999, 305~317쪽.
- _____, 『국어의 음운표시와 음운과정』 1-2, 태학사, 2000.
- _____, 「형태음운론적 교체에 대하여」, 『국어교육』 110,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3, 181~200쪽.
- 김유범, 「이형태 교체의 조건과 중세국어 이형태 교체의 몇 문제」,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2008, 201~222쪽.
- _____, 「이형태의 성격과 이형태 교체의 유형」, 『국어학』 81, 국어학회, 2017, 325~349쪽.
- 민현식, 『국어 문법 연구』, 역락, 1999.
- 박선우, 「불규칙활용의 불규칙성에 대한 검토」, 『청람어문교육』 30, 청람어문교육학회, 2004, 223~249쪽.
- 박재연, 「이형태 교체와 관련된 몇 문제」, 『국어학』 58, 국어학회, 2010, 129~155쪽.
- 배주채, 「불규칙활용」, 『새국어생활』 10-2, 국립국어연구원, 2000, 163~169쪽.
- _____,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2003.
- _____, 「'달다, 다오'의 어휘론」, 『국어학』 56, 국어학회, 2009, 192~220쪽.
- _____, 「교체의 개념과 조건」, 『국어학』 81, 국어학회, 2017, 295~323쪽.
- 백경미, 「유아의 언어 습득 과정에 나타난 용언 활용 오류」, 『한국언어문화』 44, 2011, 255~274쪽.
- 송원용, 「어휘판단과제를 활용한 활용형의 심리적 실재성 검증」, 『형태론』 17.2, 2015, 201~232쪽.
- 송철의, 「곡용과 활용의 불규칙에 대하여」, 『진단학보』 80, 진단학회, 1995, 273~290쪽.
- _____, 「형태론과 음운론」, 『국어학』 35, 국어학회, 2000, 287~311쪽.
- 이삼형·김태경·임정남, 「어간 재구성 현상을 통해 본 유아의 용언 활용 규칙 습득 과정」, 『국어교육』 130, 2009, 123~146쪽.
- 이은경, 「교체의 사전적 처리에 대하여」, 『한국사전학』 30, 한국사전학회, 2017, 155~189쪽.
- _____, 「준말과 관련된 몇 문제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4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 333~356쪽.
- 이진호, 「국어의 음운론적 제약 체계」, 『어문연구』, 12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59~82쪽.
- _____, 「형태소 교체의 규칙성에 대하여」, 『국어학』 69, 2014가, 3~29쪽.
- _____, 『국어 음운론 강의(개정판)』, 삼경문화사, 2014나.
- _____, 「불규칙의 개념과 용법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국학연구』 3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가, 457~476쪽.
- _____, 「형태소의 교체 조건」, 『형태론』 17-1, 2015나, 169~183쪽.
- _____, 「자동적 교체는 항상 규칙적 교체인가」, 『국어학』 89, 국어학회, 2019, 3~24쪽.

- 이찬영, 『계열 관계에 기반한 용언 활용 기술과 규칙성』, 『형태론』 20.1, 2018, 29~78쪽.
- 이혁화, 『교체에 대하여』, 『형태론』 4.1, 2002, 59~80쪽.
- 이홍식, 『‘-오-’의 기능 구명을 위한 서설』, 국어학논집, 서울대국어국문학과, 1992, 95~104쪽.
- _____, 『교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성심어문논집』 22, 2002, 247~272쪽.
- _____, 『형태소와 문법 기술』, 『어문학』 109, 어문학회, 2010, 1~35쪽.
- _____, 『교체의 대상과 조건에 대하여』, 『언어과학연구』 63, 2012, 283~300쪽.
- _____, 『곡용과 활용 현상의 사전 기술』, 『한국학연구』 5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9, 237~267쪽.
- 이홍식 · 이은경, 『교체의 분류에 대하여』, 『국어학』 82, 국어학회, 2017가, 67~99쪽.
- _____, 『교체와 유의관계』, 『한국어학』 77, 한국어학회, 2017나, 227~253쪽.
- 임흥빈, 『선어말 어미 {-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 고영근(2020a)에 답함-』, 『형태론』 22권 2호, 2020, 435~477쪽.
- 정경재, 『한국어 용언 활용 체계의 통시적 변화』,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최명옥, 『현대 한국어의 공식 형태론 - 경주지역어를 실례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2012.
- 한수정, 『불규칙용언의 활용형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14.

On Some Problems Related to the Description of the Conditions and the Regularity of the Alternation

Yi, Hongshik*

In this paper, we examined targets and conditions of the alternation and reviewed the issues related to the regularity of the alternation. When describing the alternation, we may consider the targets of alternation as morphs. When two or more morphs belong to a single morpheme, these forms are described as being alternated under certain conditions. However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describe alternation with morph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scribe the process of underlying forms being realized as surface forms. The conditions of alternation refer to the environment in which these forms appear. Sometimes the description of alternation can be problematic if the language units that appear before or after the surface forms are described as conditions for alternation. In such cases, it is necessary to describe the environment for deriving the surface form as a alternation condition for that morph in the derivational process.

Automatic alternation has been understood to mean regular alternation, but certain alternations which are automatic alternations may not be considered regular alternations. When two or more alternations are made in the same environment, it is a matter of which side to view as regular alternation. The wider scope of alternation should be regarded as regular alternation.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ey words : alternation, morph, morpheme, allomorph, alternant, stem, ending, conjugation, underlying form, surface form